

##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의 새 번역과 바울의 ‘자랑’ 모티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최영숙\*

### 1. 시작하는 말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목적어로서 여격, 목적격, 전치사와 함께 오는 목적어 등이 올 수 있다. 특히 헬라어는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존재하는데,<sup>1)</sup> 이러한 경우 우리말에 존재하는 어법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 문화권과 우리의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까지도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가 올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사는 자동사가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타동사 역할을 한다. 만약 문장 구성 그대로 동사는 자동사로, 전치사는 전치사구로 번역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버린다.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동사는 타동사로, 전치사+명사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번역해야 한다.

헬라어 동사 *καυχᾶσθαι*가 이러한 번역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καυχᾶσθαι*가 전치사 *ἐν*과 결합하면,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우리말, 영어, 독일어)은 ‘...안에서 자랑하다’라고 번역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καυχᾶσθαι*가 *ἐν κυρίῳ*와 결합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ἐν κυρίῳ)라는 바울의 정형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경우의 수조차도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καυχᾶσθαι*가 *ἐν κυρίῳ*와 결합한 경우라도(고전 1:31; 고후 10:17), *ἐν κυρίῳ*는 *καυχᾶσθαι*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주를 자랑하다’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이는 바울 신학 사상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살펴볼 것이다.<sup>2)</sup>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1) 이러한 경우는 독일어와 영어 등의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2) 이 연구에 대한 한국 문헌이 없어서 한국어로 된 문헌을 참조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학문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또한 고린도후서 10-13장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는 καυχῆσομαι ἐν ταῖς ἀσθενείαις(고후 12:5,9; 11:30 참조.)도 현재 우리말 성경(독일어, 영어도 마찬가지)에서 번역된 표현들과는 다르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의 모두가 바울에게 사용되고 있는 ‘자랑함’(καυχᾶσθαι)의 주제가 지금까지 학문적 연구에서 많이 간과되어 왔으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용할 때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sup>3)</sup>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 2. 고전 헬라어의 여격 대신 목적격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우리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들이 고전 헬라어에서는 여격을 취하는 동사들이었던 경우들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λοιδορεῖν τινα(…을 모욕하다, 요 9:28; 행 23:4), ἐπιηράζειν τινα(…을 비방하다, 마 5:44=눅 6:28; 벧전 3:16), καταρᾶσθαι τινα(…을 저주하다, 마 5:44=눅 6:28; 막 11:21; 약 3:9), λυμαίνεσθαι τινα(…을 파괴하다, 행 8:3), βλασφημεῖν τινα(…을 비방하다, 마 27:39) 등의 동사들이 코이네 헬라어인 신약성경에서는 목적격을 취하고 있으나, 고전 헬라어(특히 Att.)에서는 여격을 취하던 동사들이었다.<sup>4)</sup> 신약성경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8:8의 경우 μεμφόμενος γὰρ αὐτοὺς λέγει(그는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표현이 목적격을 취하고 있으나,<sup>5)</sup> 다른 사본들(ϒ<sup>46</sup>, κ<sup>2</sup>, B, D<sup>2</sup>)은 여격인 αὐτοὺς를 제시한다. 헬라어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취할 때, 똑같은 동사라 할지라도 직접목적어로 목적격을 취할 때도, 여격을 취할 때도 있으며, 여격도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우리말과는 다르게 여격이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헬라어에서는 많이 발생한다.<sup>7)</sup> 그 중에서도 특히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우리말 어법에

3) 바렛(C. K. Barrett)도 바울의 καυχᾶσθαι는 바울의 중요한 신학사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조. C. K. Barrett, “Boasting (καυχᾶσθαι, κτλ.) in the Pauline Epistles”, A. Vanhoye, *L' apôtre Paul: personnalité, style et conception du ministère* (Leuven: Leuven Uni. Press, 1986), 363-368, 363.

4) BDR § 152.1.

5) BDR § 152.1.

6) 반대로 고전 헬라어에서는 목적격을 목적어로 사용하지만 신약 헬라어에서는 여격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조. BDR § 151.

7) 이런 현상은 독일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장 흔한 예를 보면, er hilft mir의 문장에서 mir가 여격이지만, 우리말 표현은 ‘그는 나에게 돕는다’가 아니라, ‘그는 나를 돕는다’가 된다.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 3.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에서, *καυχᾶσθαι*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른 동사들의 경우를 보자. *βλασφημεῖν* 동사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목적어로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이지만, 고전 헬라어에서는 여격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기도 한다. 마지막의 경우는 *καυχᾶσθαι*처럼, *ἐν* + 여격의 형태를 목적어로 가지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예를 베드로후서 2:12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8)</sup>

*ἐν οἷς ἀγνοοῦσιν βλασφημοῦντες*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잠깐 비껴가서 오늘날 독일어의 경우도 이처럼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Ich glaube an Gott.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sup>9)</sup>

Ich warte auf meine Freundin. 나는 내 여자 친구를 기다린다.

첫 번째 예문에서 *glauben*(…을 믿다)은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갖는 동사로서,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전치사까지 포함한 *an Gott*가 *glauben*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나는 하나님을 믿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문에서 *warten*(…를 기다리다)도 기다리는 대상을 표현할 때 전치사 *auf*가 필요하며, *auf meine Freundin*(‘내 여자친구’)이 *warten*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나는 내 친구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다시 헬라어로 돌아가면, *πιστεύειν*(믿다) 동사가 정확히 첫 번째의 경우와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 9:35 οὐ πιστεύεις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요 14:1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요일 5:10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8) 참조. BDR § 152.1. 물론 이 경우는 여러 가지 번역의 경우가 생긴다. 그럼에도 우리말에서 비방하는 대상은 *ἐν οἷς ἀγνοοῦσιν*가 될 수 있다.

9) 영어에서 ‘believe in…’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롬 10:11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κατασχυνηθήσεται.

벧전 2:6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μὴ κατασχυνηθῆ.

동사 πιστεύειν은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sup>10)</sup>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πιστεύειν은 εἰς+목적격, 또는 ἐπί+여격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sup>11)</sup> 요한복음 14:1의 경우 πιστεύειν 동사가 다음에 오는 전치사를 전치사구로 취급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근거로’ 믿는다고 번역할 수 없다. 전치사를 동반한 εἰς τὸν θεὸν이 전치사와 함께 πιστεύειν의 목적어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믿다’로 번역해야 한다. 곧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 4. 바울서신에서 ἐν과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καυχᾶσθαι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헬라이어(또한 독일어)에서는 존재하지만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법이다. 즈미예프스키(Zmijewski)는 καυχᾶσθαι 동사는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그 동사는 대부분 전치사를 동반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는 ἐν(+여격)이다.<sup>13)</sup>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즈미예프스키(대부분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의 논의대로 동사를 자동사로, 전치사+명사를 전치사구로 번역한다면 오역이 되고 만다. 동사 καυχᾶσθαι는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취급하여, ἐν + 여격명사는 καυχᾶσθαι의 대상이 되어 목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대상은 바울서신에서 주로 하나님(롬 2:17; 5:11), 주(고전 1:31; 고후 10:17), 그리스도(빌 3:3), 율법(롬 2:23), 육체(갈 6:13), 십자가(갈 6:14), 약함(고후 12:9), 환난(롬 5:3), 수고(고후 10:15)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관찰해 본다(다음 세 구절 모두는 사역).

롬 2:23 ὃς ἐν νόμῳ καυχᾶσαι, ... τὸν θεὸν ἀτιμάζεις·

10) πιστεύειν의 경우 대부분 타동사의 목적으로 전치사가 함께 동반되어 사용되지만, 갈라디아서 3:6의 경우처럼 여격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한다: Ἀβραὰμ ἐπίστευσεν τῷ θεῷ.

11) 독특한 점은 요한계열에서는 πιστεύειν이 εἰς+목적격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ἐπί+여격의 형태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에서 선호한다는 것이다.

12) J. Zmijewski, καυχᾶσθαι, *EWNT* II (1992<sup>3</sup>), 680-690, 682; Bauer, *Wb*, 866.

13) 드물지만 ἐπί(+여격)가 오는 경우도 있다(롬 5:2, καυχώμεθα ἐπ’ ἐλπίδι).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롬 5:11 καυχώμενοι ἐν τῷ θεῷ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빌 3:3 καυχώμενοι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로마서 5:11(또한, 롬 2:17)의 경우, 만약 즈미에프스키의 말대로 καυχᾶσθαι 를 자동사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다’가 된다.<sup>14)</sup> 그러나 자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ἐν τῷ θεῷ를 목적으로 상정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로마서 2:2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랑하는 것의 대상은 율법이며(‘율법을 자랑하다’), 빌립보서 3:3도 자랑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 5. καυχᾶσθαι ἐν κυρίῳ에 대한 번역

### 5.1. 고린도전서 1:31의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의 예

바울은 καυχᾶσθαι 동사를 고린도전서 1-4장과 고린도후서 10-13장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주제 아래 그의 신학적인 사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서 1:31과 3:21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절이지만, 하나의 연결된 문구로 읽을 수 있다. 곧 ‘누구든지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3:21),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1:31).’ 바울은 이 구절을 유대 지혜전승인 예레미야 9:23-24에서 가져온다.<sup>15)</sup> 그 예문과 번역본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고전 1:31	ὁ καυχώμενος	<u>ἐν κυρίῳ</u>	καυχάσθω	(←렘 9:24)
고전 3:21	μηδὲς	καυχάσθω	<u>ἐν ἀνθρώποις</u>	(←렘 9:23)

#### 고린도전서 1:31

『개역』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개역개정』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4) J. Zmijewski, καυχᾶσθαι, 682; Bauer, *Wb*, 866.

15) 이 두 구절에 대한 예레미야의 인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영숙, “바울의 예레미야 9:23-24 읽기”, 『신약연구』 9:3 (2010), 439-464.

『새번역』 누구든지 자랑하려고든 **주님을** 자랑하라.

### 영어번역의 경우

ESV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NAS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NRSV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 독일어번역의 경우

MNT Der sich Rühmende, im Herrn soll er sich rühmen.  
 LUT Wer sich rühmt, der rühme sich des Herrn!  
 ELB Wer sich rühmt, der rühme sich des Herrn!

NTG<sup>27</sup>의 ἐν κυρίῳ καυχᾶσθω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개역』/『개역개정』)고 번역되어 있다. 영어 역본의 경우도 거의 모두가 ‘주 안에서’(in the Lord)라는 번역을 취하고 있다. 독일어 역본에는 우리 말에서처럼 ‘주 안에서(im Herrn) 자랑하라’(MNT)와 ‘주를 자랑하라’(rühme sich des Herrn, LUT/ELB)는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본래 예레미야가 나란히 대조적 평행구조로 표현하였던 구절(9:23-24)을 고린도전서 1:31과 3:21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인클루시오(inclusio)로 형성하여, 고린도전서 1-4장의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는 중요한 신학사상을 창출한다.<sup>16)</sup> 고린도후서 10:17(ὁ δὲ καυχώμενος ἐν κυρίῳ καυχᾶσθω)은 고린도전서 1:31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본들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모두가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1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번역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를 자랑하라’고 번역해야 한다.

## 5.2. 고린도전서 3:21의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의 예

### 고린도전서 3:21

『개역』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개역개정』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새번역』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영어번역의 경우

16) 참조. 최영숙, “바울의 예레미야 9:23-24 읽기”, 456-460.

ESV	let no one boast in men.
NAS	let no one boast in men.
NRSV	let no one boast about human leaders.

### 독일어번역의 경우

MNT	soll keiner sich rühmen <i>bei Menschen</i> .
LUT	rühme sich niemand <i>eines Menschen</i> .
ELB	rühme sich denn niemand <i>im Blick auf Menschen</i> .

이 구절도 동사 *καυχᾶσθαι*는 전치사 *ἐν*을 수반한 목적어로 사용되어 고린도전서 1:31과 동일한 문장요소를 구성한다. 그러나 *ἐν κυρίῳ* 경우는 ‘주 안에서’라고 번역한 반면, *ἐν ἀνθρώποις* 경우 우리말 성경들은 직접목적어로 취급하여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고 옳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번역한 경우처럼, 전치사구로 따로 구별하여 대부분 ‘사람 안에서’(in men)라고 하였고, 독일어 역본에서는 역본마다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인간과 관련하여(bei) 자랑하지 말라’(MNT), ‘인간의 관점으로(im Blick auf) 자랑하지 말라’(ELB), LUT에서만 이 올바르게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καυχᾶσθαι+ἐν+여격*의 문구를 동사는 자동사로, *ἐν+여격*명사는 전치사구로 생각하여 ‘... 안에서 자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특히 *καυχᾶσθαι*가 *ἐν κυρίῳ*와 결합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번역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ἐν κυρίῳ)라는 바울의 정형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καυχᾶσθαι*가 *ἐν κυρίῳ*와 결합한 경우이라도 *καυχᾶσθαι*가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가지는 범주로 취급하여, 자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주 안에서 자랑하다’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우리말 성경 번역(또한 영어, 독일어)에는 ‘주를 자랑하라’는 바울의 중요한 사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 6. 바울의 자랑 모티브의 새로운 이해

### 6.1. 바울의 바보진술과 자랑진술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자랑(*καυχᾶσθαι/καύχησις*) 모티브를 고린도후서

10-13장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7)</sup> 자랑에 해당하는 세 단어 καυχᾶομαι/καύχημα/καύχησις는 신약에서 거의 60번 사용되는데, 바울의 편지에서 거의 대부분(53번)<sup>18)</sup>이 나타난다. 독특한 점은 동사 καυχᾶομαι(‘자랑하다’)가 거의 모두 바울서신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다.<sup>19)</sup> 따라서 ‘자랑’ 모티브는 전적으로 바울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특히 헬레니즘 문학 장르인 바보진술<sup>20)</sup>(11:1, ἀφροσύνη과 12:11, ἄφρων<sup>21)</sup>의 *inclusio*)에 해당하는 고린도후서 11:1-12:13에서 ‘자랑’의 주제가 독특하게 묘사된다.<sup>22)</sup> 바울의 자랑 모티브는 유대의 지혜전통<sup>23)</sup>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바울의 자랑진술은 바보진술의 틀 안에서 역설로 존재한다. 바울의 자랑은 풍자적으로 바울의 반대자들의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sup>24)</sup> 실제적으로는 반대자들의 모습이 바보이지만, 반대자들의 주장을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눈높이로 비판하기 위해서,<sup>25)</sup> 바울도 바보의 역할을 한다.<sup>26)</sup> 이때 자랑은 자연스레 상호 비교(σύγκρισις)를 통하여 이루어진다.<sup>27)</sup> 바울은

17) 19번 사용(고후 10:8, 13, 15, 16, 17<sup>2</sup>; 11:10, 12, 16, 17, 18<sup>2</sup>, 30<sup>2</sup>; 12:1, 5<sup>2</sup>, 6, 9).

18) 본문 비평적으로 논쟁 중인 고전 13:3을 포함하면 54번.

19) NT에서 37번 중에서 3번을 제외하곤 모두 바울서신에서 발생한다. 바울서신 외에서 3번 발생한 곳: 엡 2:9; 약 1:9; 4:16.

20) 즈미에프스키는 그의 단행본에서 바울의 ‘바보진술’의 문체와 헬레니즘 사이의 문체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비교하고 있다. 참조. J. Zmijewski, *Der Stil der paulinischen 'Narrenrede'. Analyse der Sprachgestaltung in 2 Kor 11,1-12,10 als Beitrag zur Methodik von Stiluntersuchungen neutestamentlicher Texte*, BBB 52 (Köln; Bonn: Hanstein, 1978); 참고. U. Heckel, *Kraft in Schwachheit. Untersuchungen zu 2.Kor 10-13*, WUNT II:56 (Tübingen: Mohr, 1993), 22-23; J. T. Fitzgerald, *Cracks in an Earthen Vessel. An Examination of the Catalogues of Hardship in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SBLDS 99 (Atlanta: Scholars Press, 1988); S. J. Hafemann, “‘Self-Commendation’ and Apostolic Legitimacy in 2 Corinthians: A Pauline Dialectic?”, *NTS* 36 (1990), 66-88, 69-70; 참고. 람브레흐트(Lambrecht)는 11:22-12:10을 ‘바보진술’로 본다: J. Lambrecht, “The Fool’s Speech and Its Context: Paul’s Particular Way of Arguing in 2 Cor 10-13”, *Bib.* 82 (2001), 305-324, 306.

21) 바울은 바보진술(11:1-12:13) 안에서 ἀφροσύνη(바보/어리석음)와 관련된 용어를 9번 사용하고 있다: 고후 11:1, 16a, b, 17, 19, 21b, 23; 12:6a, 11.

22) 참조. K. W. Niebuhr, *Heidenapostel aus Israel: die jüdische Identität des Paulus nach ihrer Darstellung in seinen Briefen*, WUNT 62 (Tübingen: Mohr, 1992), 114-116.

23) 참조. 시 13:1; 73:18, 22; 91:7; 93:8 (LXX); 잠 9:13-18; 19:3; 지혜 1:16-2:20 등.

24) 참조. C. Forbes, “Comparison, Self-Praise and Irony: Paul’s Boasting and the Conventions of Hellenistic Rhetoric”, *NTS* 32 (1986), 1-30, 1.

25) 참조. C. Forbes, “Comparison, Self-Praise and Irony: Paul’s Boasting and the Conventions of Hellenistic Rhetoric”, 17.

26) E. Gräß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Bd. II, ÖTKNT 8 (Gütersloh: Mohn, 2005), 114.

27) 참조. S. H. Travis, “Paul’s Boasting in 2 Corinthians 10-12”, *Studia Evangelica* 6 (1973), 527-532; 포브스(Forbes)는 헬레니즘의 수사학적 비교(σύγκρισις), 자기 칭찬, 풍자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을 바울의 자랑과 헬레니즘 수사학과 비교하고 있다. 특히 비교(σύγκρισις) 장르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조. C. Forbes, “Comparison, Self-Praise



그의 반대자들과 그가 원하지도 않는, 유쾌하지 않은 비교를 해야만 했다.<sup>28)</sup>

## 6.2. 십자가의 주를 자랑하라

앞에서 우리는 *καυχᾶσθαι ἐν κυρίῳ*를 ‘주 안에서 자랑하다’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다’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주를 자랑하라’는 사상은 복음서에는 없는 전적으로 바울만이 관심 갖는 주제이며, 주로 고린도교회가 주요 무대가 된다. 고린도교회는 자랑(*καυχᾶσθαι*, 1:29-31; 3:21; 4:7)과 교만(*φυσιοῦσθαι*, 4:6, 19)의<sup>29)</sup> 실존 속에 살고 있으며, 바울은 이 두 행동방식을 비판한다.<sup>30)</sup> 고린도교회는 종말론적 기대로 점철된 배부름, 부유함으로,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자랑한다.<sup>31)</sup> 그들은 하나님의 영(2:12), 모든 지식(1:5), 많은 은사들(12장; 13:2)을<sup>32)</sup>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사실을 잊은 듯, 자신들의 지혜로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sup>33)</sup>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면서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참조. 고전 4:7)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질타한다.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은혜의 선물은 인간적인 자랑에서는 단한다(참조. 롬 3:24, 27).<sup>34)</sup> 따라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καυχᾶσθαι ... ἐν τῷ σταυρῷ*)고 말한다(갈 6:14). 여기에서도 앞서 논의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ἐν τῷ σταυρῷ*는 *καυχᾶσθαι*의 목적으로 번역해야 한다.

---

and Irony: Paul’s Boasting and the Conventions of Hellenistic Rhetoric”, 2-8.

28) C. Forbes, “Comparison, Self-Praise and Irony: Paul’s Boasting and the Conventions of Hellenistic Rhetoric”, 16.

29) *φυσιοῦσθαι*는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개념이며, 바울서신에서는 단지 고린도전서에서만 발생하는데 6번의 *φυσιοῦσθαι*를 만날 수 있다(4:6, 18, 19; 5:2; 8:1; 13:4). 고린도전서 외에서는 골 2:18에서만 발견된다.

30) 참조. 최영숙, “바울의 고난과 교회의 하나됨: 고린도전서 4장 6-13절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2010), 35-63, 41-43.

31) 슈라게(Schrage)는 고린도교회의 신앙의 열광자들에게 이미 종말론적 완성에서 살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 말한다(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I*, 338:); 참조. A. C. Thiselton, “Realized Eschatology at Corinth”, *NTS* 24 (1978), 510-526, 특히 524. 이와 반대로: E. E. Ellis, *Prophecy and Hermeneutic in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Essays*, WUNT 18 (Tübingen: Mohr, 1978), 77-79.

32) C. Wolff,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ThHNT 7 (Leipzig: Evang. Verl.-Anst., 1996), 86.

33) D. Zeller,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112-115.

34) 참조. 최영숙, “바울의 고난과 교회의 하나됨”, 42.

### 6.3. 약함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1-4장)에서 십자가의 죽음<sup>35)</sup>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κύριος)를 자랑하라’고 선포한 바울은 고린도후서(10-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는 사도의 실존을 담아낸다. 바울이 허용하는 자랑은 이것뿐이며, 그 외의 모든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은 11:21b-30에서 고난의 경험과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이어서 다메섹의 도망자로서의 고난의 모습을 묘사하며(11:31-33),<sup>36)</sup> 반대자들의 자랑을 비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계시와 환상을 말한 후(12:1-4), 질병으로 인한 그의 약함을 자랑하며(12:7-9b), 이어서 다시 고난의 경험과 그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한다(12:9b-10).<sup>37)</sup>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세 개의 구절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고후 11:30 Εἰ καυχᾶσθαι δεῖ, τὰ τῆς ἀσθενείας μου καυχῆσομαι.

고후 12:5 οὐ καυχῆσομαι εἰ μὴ ἐν ταῖς ἀσθενείαις.

고후 12:9 καυχῆσομαι ἐν ταῖς ἀσθενείαις μου.

#### 고린도후서 11:30

『개역』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개역개정』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새번역』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 고린도후서 12:5

『개역』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 고린도후서 12:9

『개역』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개역개정』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35) D. Zeller,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15.

36) 참조. G. Guttenberger, “Klugheit, Besonnenheit, Gerechtigkeit und Tapferkeit. Zum Hintergrund der Vorwürfe gegen Paulus nach 2Kor 10-13”, *ZNW* 96 (2005), 78-98, 84.

37) 참조. Y. S. Choi, *Denn wenn ich schwach bin, dann bin ich stark: die paulinischen Peristasenkataloge und ihre Apostolatstheologie*, NET 16 (Tübingen: Francke, 2010), 226.

『새번역』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번역상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첫 번째는  $\kappa\alpha\upsilon\chi\acute{\alpha}\sigma\theta\alpha\iota+\acute{\epsilon}\nu+$ 여격 명사의 구문에 관한 것이다. 12:5와 12:9에서  $\kappa\alpha\upsilon\chi\acute{\eta}\sigma\omicron\mu\alpha\iota \acute{\epsilon}\nu \tau\alpha\iot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lpha\iota\varsigma$ 는 고린도전서 1:31(또한 고후 10:17)과 마찬가지로,  $\kappa\alpha\upsilon\chi\acute{\alpha}\sigma\theta\alpha\iota+\acute{\epsilon}\nu+$ 여격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sup>38)</sup> 앞에서 논의한 근거대로  $\acute{\epsilon}\nu \tau\alpha\iot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lpha\iota\varsigma$ 는 전치사를 동반한 목적어로 취급되어 ‘약함을 자랑한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개역』과 『개역개정』)고 번역되어 있다. 12:5와 12:9에서는 『새번역』만이 ‘…를 자랑하다’라고 옳게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를 ‘약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전히 번역의 재고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sup>39)</sup>를 ‘약한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더 거리가 먼 ‘약점’이라고 번역하였다. 이곳에서의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는 ‘약함’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30과 12:5 및 12:9은 바울이 사도로서 그의 복음 선포 사역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경험담을 열거하고 있는 고난목록에 해당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이다. 11:30은 11:21b-29까지의 고난의 상황들, 고난의 경험들을 열거한 후 요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며, 12:5<sup>40)</sup>와 12:9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경험들의 결론 구절이다. 12:5와 12:9, 두 구절은  $\kappa\alpha\upsilon\chi\acute{\eta}\sigma\omicron\mu\alpha\iota \acute{\epsilon}\nu \tau\alpha\iot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lpha\iota\varsigma$ 의 형태이므로 앞서 말한 대로 ‘약함을 자랑하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약함’과 ‘약점’사이의 엄연히 의미상의 차이가 크며, ‘약점’이라는 번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너무 어긋난 표현이다. 고난목록에서 말하는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약함)이란 ‘강함’과 대조되는 개념이며(11:30), ‘능력’(δύναμις)과도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2:9). 바울에게 ‘약함’은 ‘고난’을 의미하며, 따라서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는 ‘고난’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38) 11:30의 경우는  $\kappa\alpha\upsilon\chi\acute{\alpha}\sigma\theta\alpha\iota$ 가 전치사 없이 직접 목적어를 사용하여, 무난하게 ‘나는 내 약함의 것을 자랑한다’고 번역할 수 있게 된다.

39) 바울은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를 δύναμις와 대조어로 사용하고 있다.  $\acute{\alpha}\sigma\theta\acute{\epsilon}\nu\epsilon\iota\alpha$ 과 δύναμις의 헬레니즘 문헌에서 비교하고 그것의 역설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Hotze의 단행본을 참조하라: G. Hotze, *Paradoxien bei Paulus. Untersuchungen zu einer elementaren Denkform in seiner Theologie*, NTA.NF 33 (Münster: Aschendorff, 1997).

40) 12:5는 12:1-4까지의 결론 부분이며, 이 부분이 내용 자체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환상과 계시도 앞의 단락 11:21b-30의 고난 목록과 연관되어 있다.

수 있는 말인 ‘약함’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제 11:30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논문의 초점은 καυχᾶσθαι+ἐν+여격명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11:30은 문장구조가 καυχᾶσθαι+직접 목적어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12:5와 12:9만이 이 논문과 관련되지만, 내용 면에서 두 구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구절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바울은 11:30의 자랑의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사용하여 τὰ τῆς ἀσθενείας(그대로 번역하면 ‘약함의 것들’)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바울이 관사 τὰ(중성, 복수)와 ἀσθένεια의 소유격 형태인 τῆς ἀσθενείας를 결합하여 τὰ τῆς ἀσθενείας라고 표현한 것은 뚜렷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는 11:21b-29까지 고난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한 후, 자랑은 근본적으로 금지된 것이지만, 그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복음 선포 사역을 하는 동안 경험했던 ‘약함(곧 고난)의 경험들’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41)</sup> 따라서 여기에서 관사 τὰ(중성, 복수)는 앞 구절들에서 계속 열거했던 ‘경험들’을 의미하며, τὰ τῆς ἀσθενείας는 ‘약함의 경험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약함’은 ‘강함’, 또는 ‘능력’과 대조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고난 목록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개념이므로 ‘약함’은 절대로 ‘약점’(표준새번역)일 수가 없으며, ‘약한 것’과도 다르다.

혹자는 ‘약함의 것들’과 ‘약한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며,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념은 다르다. ‘약한 것’은 개별적인 신체적 또는 육체적 약한 것이라는 표현과 같은 축소된 표현인 반면, 바울은 ἀσθένεια를 개개별 약한 것이라는 축소된 의미가 아닌, 총체적인 표현을 함유한 추상명사로 ‘고난’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만약 바울이 ‘약한 것’을 말하고자 했다면 정관사 + 형용사의 형태인 τὰ ἀσθενῆ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정관사와 소유격 명사의 형태인 τὰ τῆς ἀσθενείας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약함의 경험들’, 곧 ‘고난의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헬라어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경험들’을 τὰ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해석이 가미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의미를 살려 ‘약함의 경험들’이라고 하든지, 아

41) 고난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Y. S. Choi, *Die paulinischen Peristasenkataloge*, 175-223.

니면 추상명사인 형태로 ‘약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sup>42)</sup>. ‘약한 것’이나 ‘약점’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을 경험하며, 견디며, ‘고난(또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다고 약함과 고난이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sup>43)</sup>

바울의 반대자들은 분수에 넘치도록 자기자랑을 일삼는다.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고후 3:1-3),<sup>44)</sup> 인간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가문, 명예, 부를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경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바보진술과 자랑진술의 장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증한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마음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고후 5:12), ‘스스로를 추천하고 칭찬하는 자들’(10:12),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어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고후 10:15), ‘육체에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고린도교회이다. 바울이 인간적인 육체에 따른 자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의 반대자들보다 더 많은 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고후 12:1-10; 12:12), 그는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경험한 계시와 환상들까지도 자랑으로 비취질까봐 조심스러워한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한다(고후 11:30; 12:5, 9). ‘그리스도 안에 존재’ 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자랑하는 자들이며,<sup>45)</sup>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닮아가고 본받는 자이다. 따라서 바울은 말한다.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고후 11:30; 12:5, 9).”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고후 12:9).<sup>46)</sup>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그 때에 내가 강하다”(고후 12:9-10)는 바울의 실존을 가능하게 해준다.

42) 타 언어권에서도 weakness 또는 Schwachheit라고 번역한다

43) 참조. C. K. Barrett, “Boasting (καυχᾶσθαι, κτλ.) in the Pauline Epistles”, 367.

44) 참조. E. Gräb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I*, 118-123; F. J. Matera, *II Corinth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75-78; S. J. Hafemann, *2 Corinthi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115-118.

45) 참조. F. Zeilinger, *Krieg und Friede in Korinth: Kommentar zum 2. Korintherbrief des Apostels Paulus. 1. Der Kampfbrief, der Versöhnungsbrief, der Bettelbrief* (Wien [u.a.]: Böhlau, 1992), 103; E. Gräb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II*, 181.

46) J. Lambrecht, “Dangerous Boasting: Paul’s self-commendation in 2 Corinthians 10-13”, R. Bieringer, (ed.),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BETHL 125 (Leuven: Leuven Uni. Press, 1996), 325-346, 339.

## 7. 맺음말

바울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랑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헬라어 καυχᾶσθαι (자랑하다) 동사는 대부분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며,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법이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ἐν κυρίῳ와 결합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바울의 정형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번역의 실수를 범한다. 곧 많은 학자들이 καυχᾶσθαι+ἐν+κυρίῳ 문구를 ‘… 안에서 자랑하다’(고전 1:31; 고후 10:17)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바울이 특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문구를 “주를 자랑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과 ‘주를 자랑하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둘은 바울의 신학적 사고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버린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라는 이름하에, 뭐든지 은근슬쩍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가 원치 않는 바를 ‘주 안에서’라는 허용치를 두며 자랑하는가?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주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이다. 바울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자랑은 무엇이든지 거절된다.

‘주를 자랑하라’는 바울사상은 그의 사도직과 관련한 ‘약함[고난]을 자랑하라’는 사상으로 이동한다. καυχῆσομαι ἐν ταῖς ἀσθενείαις(고후 12:5, 9; 참조 11:30) 표현을 우리말 성경(영어, 독일어도 마찬가지)은 ‘약한 것(또는 약점)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καυχᾶσθαι는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ἐν ταῖς ἀσθενείαις)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한다’고 번역해야 한다. 또한 ἀσθένεια도 ‘약한 것’(『개역』/『개역개정』) 또는 ‘약점’(『새번역』)이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 앞에서 논의된 바대로 고난목록에서 발생하는 ἀσθένεια는 고난과 동일한 의미에서 ‘약함’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1-4장)에서 기독교적 측면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κύριος)를 자랑하라’고 선포한 바울은 고린도후서(10-13장)에서는 실천적 측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과 관련하여, 사도로서 경험하는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곧 바울의 자랑의 대상은 ‘십자

가에 달리신 주'에서 실천적 행동인 '약함(고난)의 자랑'으로 옮겨간다. '주를 자랑하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인간의 자랑을 비판하고, 주를 자랑하는(1:29-31; 3:18-21a; 4:6-7) 삶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up>47)</sup>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자랑하는 자들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본받고 닮아가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약함, 고난을 기쁨으로 자랑한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고후 11:30; 12:5, 9)."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12:9).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12:10)는 역설의 진리를 자신의 사도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한다.

<주요어> (Keywords)

자랑, 바보진술, 약함, 십자가, 역설, καυχᾶσθαι.

boasting, fool's Speech, weakness, cross, paradox, καυχᾶσθαι.

(투고 일자: 2012. 2. 7,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3. 15)

47) 참조. 최영숙, "바울의 고난과 교회의 하나됨", 41-42.

<참고문헌>(References)

- Novum Testamentum Graece, hg. v. K. Aland und B. Aland, Stuttgart, 1995<sup>27</sup>.
- Bauer, W.,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6. völlig neu bearb. Aufl. hg. von K. Aland und B. Aland, Berlin [u.a.]: de Gruyter, 1988.
- Blass, F. und Debrunner, A.,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Bearb. von F. Rehkopf, 18 Aufl., Göttingen: V & R, 2001.
- Leggiewie, O., (hg.), *Ars Graeca. Griechische Sprachlehre*, Neu bearb. von R. Mehrlein, F. Richter und W. Seelbach,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1981.
- Menge, H., *Langenscheidts Großwörterbuch Altgriechisch: Altgriechisch- Deuts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tymologie*, 30. Aufl., Berlin[u.a.]: Langenscheidt, 2001.
- 김판임, 『고린도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마틴, 펠프 P., 『고린도후서』, 김철 역, WBC 40; 서울: 솔로몬, 2007.
- 최영숙, “바울의 예레미야 9:23-24 읽기”, 『신약연구』 9:3 (2010), 439-464.
- 최영숙, “바울의 고난과 교회의 하나됨: 고린도전서 4장 6-13절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2010), 35-63.
- Thiselton, A. C.,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본 실용적 주석』, 권연경 역, 서울: SFC, 2011.
- Barrett, C. K., “Boasting (καυχᾶσθαι, κτλ.) in the Pauline Epistles”, A. Vanhoye, *L'apôtre Paul: personnalité, style et conception du ministère*, Leuven: Leuven Uni. Press, 1986, 363-368.
- Choi, Y. S., *Denn wenn ich schwach bin, dann bin ich stark: die paulinischen Peristasenkataloge und ihre Apostolatstheologie*, NET 16; Tübingen: Francke, 2010.
- Ebner, M., *Leidenslisten und Apostelbrief. Untersuchungen zu Form, Motivik und Funktion der Peristasenkataloge bei Paulus*, FzB 66; Würzburg: Echter Verl., 1991.
- Ellis, E. E., *Prophecy and Hermeneutic in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Essays*, WUNT 18, Tübingen: Mohr, 1978.
- Fitzgerald, J. T., *Cracks in an Earthen Vessel: An Examination of the Catalogues of Hardship in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SBLDS 99,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Forbes, C., “Comparison, Self-Praise and Irony: Paul’s Boasting and the



- Conventions of Hellenistic Rhetoric”, *NTS* 32 (1986), 1-30.
- Gräßer, E.,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ÖTKNT 8 I/II; Gütersloh: Mohn, 2002; 2005.
- Guttenberger, G., “Klugheit, Besonnenheit, Gerechtigkeit und Tapferkeit. Zum Hintergrund der Vorwürfe gegen Paulus nach 2Kor 10-13”, *ZNW* 96 (2005), 78-98.
- Hafemann, S., “‘Self-Commendation’ and Apostolic Legitimacy in 2 Corinthians: A Pauline Dialectic?”, *NTS* 36 (1990), 66-88.
- Hafemann, S., *2 Corinthian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0.
- Heckel, U., *Kraft in Schwachheit. Untersuchungen zu 2. Kor 10-13*, WUNT 2:56, Tübingen: Mohr, 1993.
- Horsley, R. A., “Wisdom of Word and Words of Wisdom in Corinth”, *CBQ* 39 (1977), 224-239.
- Hotze, G., *Paradoxien bei Paulus. Untersuchungen zu einer elementaren Denkform in seiner Theologie*, NTA.NF 33, Münster: Aschendorff, 1997.
- Krug, J., *Die Kraft des Schwachen: Ein Beitrag zur paulinischen Apostolatstheologie*, TANZ 37, Tübingen; Basel: Francke, 2001.
- Lambrecht, J., “Dangerous Boasting: Paul’s self-commendation in 2 Corinthians 10-13”, R. Bieringer, (ed.),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BETHL 125, Leuven: Leuven Uni. Press, 1996, 325-346.
- Lambrecht, J., “The Fool’s Speech and Its Context: Paul’s Particular Way of Arguing in 2 Cor 10-13”, *Bib.* 82 (2001), 305-324.
- Matera, F. J., *II Corinth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Merklein, H.,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ÖTKNT VII 1;2, Gütersloh: Mohn, 1992; 2000.
- Niebuhr, K. W., *Heidenapostel aus Israel: die jüdische Identität des Paulus nach ihrer Darstellung in seinen Briefen*, WUNT 62, Tübingen: Mohr, 1992.
-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I. Teilband 1Kor 1,1-6,1*, EKK VII/1, Zürich [u.a.]: Benziger [u.a.], 1991.
- Sellin, G., “Das »Geheimnis« der Weisheit und das Rätsel der »Christuspartei« (zu 1 Kor 1-4)”, *ZNW* 73 (1982), 69-96.
- Thiselton, A.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u.a.], 2000.
- Thiselton, A. C., “Realized Eschatology at Corinth”, *NTS* 24 (1978), 510-526.
- Thrall, M. E.,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vol. 2, Edinburgh: T & T

Clark, 2000.

Travis, S. H., “Paul's Boasting in 2 Corinthians 10-12”, *Studia Evangelica* 6 (1973), 527-532.

Vos, J. S., “Die Argumentation des Paulus in 1Kor 1,10-3,4”, R. Bieringer, (ed.),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BEThL 125, Leuven: Leuven Uni. Press, 1996, 87-119.

Wolff, C.,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ThHNT 7, Leipzig: Evang. Verl.-Anst., 1996.

Windisch, H., *Der zweite Korintherbrief*, KEK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sup>9</sup>.

Zeller, D.,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KE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Zmijewski, J., *Der Stil der paulinischen ‘Narrenrede’. Analyse der Sprachgestaltung in 2 Kor 11,1-12,10 als Beitrag zur Methodik von Stiluntersuchungen neutestamentlicher Texte*, BBB 52, Köln; Bonn: Hanstein, 1978.

Zmijewski, J., “καυχᾶσθαι/καύχημα/καύχησις”, *EWNT* II (1992<sup>2</sup>), 680-690.

<Abstract>

**Eine neue Übersetzung und Theologische Interpretation der  
Paulinischen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

Prof. Young Sook Choi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Üblicherweise nimmt ein transitives Verb ein dementsprechendes notwendiges Objekt, um einen Satz zu komplettieren. Im Regelfall können verschiedene Satzglieder auf der Stelle des Objektes vorkommen: ein Akkusativ, ein Dativ mit einem Akkusativ oder eine Präposition mit einem Präpositionsobjekt. Bei der Übersetzung solcher griechischen Sätze wie mit der letzten Konstruktion tritt eine Schwierigkeit hervor, dass man solche Sätze nicht einfach nach der Wortübersetzung wiedergeben kann. Deshalb ist ein technischer Schritt für die Wortübersetzung zwingend erforderlich, dass man den Satz nach dem Wortsinn so zu übersetzen versucht, die Arten der griechischen Verben nicht gleich in die andere Sprache, bzw. in die koreanische Sprache zu übernehmen, weil ein bestimmtes Verb in einer Sprache nicht die gleiche Funktion einer anderen Sprache darstellen kann. Ansonsten besteht die große Gefahr, dass der Sinn des Gedankens eines biblischen Autors dadurch verändert und verfälscht werden könnte.

Den ausdrücklich falschen Übersetzungsfehler zeigt das Verb καυχᾶσθαι. Wenn das Verb καυχᾶσθαι, mit einer Präposition ἐν bei Paulus vorkommt, wird es in vielen Übersetzungen (Koreanisch, Englisch, Deutsch) als “sich in ... rühmen” übersetzt: Insbesondere καυχᾶσθαι mit ἐν κυρίῳ, als “sich im Herrn rühmen,” aber das soll "sich des Herrn rühmen übersetzt werden.” Aber wenn man annehmen muss, dass die koreanische Sprache eine andere Sprachkonstruktion bildet, nicht wie die romanische Sprache, die viele Ausdrucksmöglichkeiten mit einer Wahl der Präpositionen besitzen, ist ein als intransitives Verb erscheinender Satz mit einer Präposition in der griechischen Sprache als ein transitives Verb ins Koreanische zu übersetzen. Das Ziel dieser Studie ist die richtige Übersetzungsmöglichkeit von καυχᾶσθαι anzubieten, zugleich den theologischen Gedankengang über das paulinische Sich-Rühmen.